

다들들~에게 의미방을



더 스토리

W기금모금캠페인 기부자 초청행사 '다정다감'
제7차 여성회의 페미니즘∞기후정의

현장 속으로

다채로운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생과 여유가 깃든 달콤한 카페, '내 사랑을 먹어주세요'
이주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규 홍보대사 배우 봉태규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줌마네 이숙경 대표



나의 젠더감수성 성장기

오현석

한국여성재단 이사
공인회계사



남중, 남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는데 동기 여학우가 자기소개 마지막 인사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게 낯설었다. 그때는 여성들의 인사법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여대를 진학한 동생이 교양과목으로 예론과 여성학 중에 선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졸업 후 취직을 했는데 고졸 여성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었다. 같이 입사한 여성 동기는 숫자도 적었고 결혼하면 그만 둘 것으로 여겼다. 외벌이 부부가 일반적이었고 맞벌이를 한다면 남자가 좀 못나 보였다. 내가 다녔던 어떤 회사에서는 같이 일하는 임신 중인 여직원이 있는데도 자기 책상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봤다.

대만 생활을 잠깐 할 때 한국 유학생이 많이 듣는 질문이 한국에서는 정말 남자가 여자를 때리느냐였다.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다. 중국에 출장을 오래 다녔는데 여성이 사회나 가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걸 봤다. 중국의 ‘38부녀절’은 우리로 하면 ‘여성의 날’인데 법정 공휴일이었고, 이 날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성대하게 행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있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좋아 보였다. 아직도 여성의 날을 잘 모르고 있고 그나마 겉치레에 불과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랐다.

개인회사를 운영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한 회사 직원들도 꽤 많다. 거의 다 여성이었다. 내가 하는 일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나는 나와 함께 일한 직원들을 통해 나는 여성 노동을 높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소통능력, 생산성 같은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 책임감이나 리더십도 꽤 높았다. 내가 특히 강조

하는 신뢰형성도 부족함이 없었고, 나는 늘 그들에게 신뢰로 보답받았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이라 믿는다.

아는 분을 통해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을 알게 되었고 10년을 함께했다. 그때 여성 단체에 남성 회원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젠더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해마다 후원행사에도 내가 참여하는 단체를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젠더를 주제로 얘기하는 게 늘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은 한국여성재단의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회계사로서 공익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체의 젠더 분야 사업에 대해 새롭게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데 감사하다.

삶 속에 계속 부딪히며 생각하면서 어렵פות이 젠더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높아가고 있다. 주위 사람들과 이런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젠더감수성, 쉽지 않다. 하지만 미뤄두지 않겠다.

Contents

여는 글	나의 젠더감수성 성장기 오현석 한국여성재단 이사 / 공인회계사	02
더 스토리	한국여성재단 25주년 W기금모금캠페인 기부자 초청행사 : ‘다정다감’ 현장 이야기	04
	제7차 여성회의 페미니즘∞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 : 기후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연대	08
현장 속으로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 다채로운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12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 상생과 여유가 깃든 달콤한 카페, ‘내 사랑을 먹어주세요’	15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 이주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17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규 홍보대사 배우 봉태규 :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20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줌마네 이숙경 대표 : 뜨거운 열정은 제 안에 있습니다	24
재단소식	재단활동 2024년 7~12월	26
	기부자 명단 2024년 7~12월	30
	수입과 지출 2024년 1~12월	32

♥ 후원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 인스타그램 @womenfund

▶ 유튜브 www.youtube.com/kwomenfund

📍 해피빈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딸들에게 희망을 2024년 하반기호 NO.156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5년 2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디자인 그래픽오션

한국여성재단 25주년 W기금모금캠페인 기부자 초청행사 ‘다정다감’ 현장 이야기

더 스토리

#다정한 기부자님들과 다감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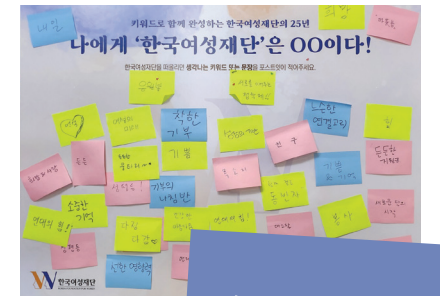
2024년 12월 12일, 한국여성재단 창립 25주년을 맞아 진행된 W기금모금캠페인으로 기부자, 파트너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하는 연말 행사, ‘다정다감’이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렸습니다. 2024년 한 해의 한국여성재단 활동을 다양한 현장 이야기와 함께 나누고,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단편 영화와 좋은 노랫말이 있는 가야금 공연을 관람하며 딸들에게 희망을 전해 온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나눔과 응원의 마음을 다시금 느꼈던 훈훈한 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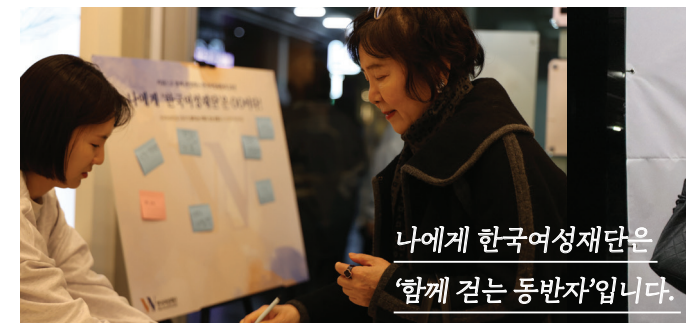
더 스토리1: 한국여성재단 25주년 W기금모금캠페인 기부자 초청행사

#사전행사

본 행사 시작 전, 현장에서는 포토존과, 이벤트, 웰컴 식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정다감 포토존에서 동행한 분들과 환한 미소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덕에 행사의 시작이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웰컴식사 공간에서 식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반가운 교제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장 이벤트, 나에게 한국여성재단이란 **이다 라는 공간에서 한국여성재단의 기부자, 파트너로서 느끼는 재단의 의미를 짧은 한마디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지하게 또는 위트 있게 재단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표현들이 판넬에 가득차며, 좋은 메시지들을 보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한국여성재단은
'서로를 이어주는 접착제'
입니다.



#1부 다정한 시간

본 행사는 한국여성재단 봉태규 홍보대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나를 믿는 힘, 너를 믿는 힘' 신승은 감독의 트레일러 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성이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감성의 영상으로 함께 믿는 힘으로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재단의 활동도 이어질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필화 이사장이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2024년 한국여성재단의 주요 활동 결과를 영상으로 나눴습니다. 2024년 한국여성재단은 1,476명의 개인기부자들, 39개의 기업/단체기부처들, 334개의파트너단체들과 168,268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하며 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2024년 11월 말 기준) 더불어 한 해 진행되었던 사업들 중 자립준비 여성청년을 지원

하는 We are Future Makers(진저티 프로젝트), 이주여성 리더 발굴 지원사업(함께하는 세상),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서울여성회) 등 세가지 사업을 현장에서 진행했던 단체 담당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로 사업의 필요와 고민, 성과를 기부자님들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5주년을 맞아 2003년부터 오랜기간 재단의 활동에 큰 힘이 되어준 기부처, 유한킴벌리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부 마지막은 현장 이벤트로 진행된 나에게 한국여성재단이란 **이다에 참여한 세분과 봉태규 홍보대사의 짧은 인터뷰로 훈훈하고 유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기부자분들, 파트너단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여성공익활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여성 역량강화와 인권향상,
그리고 취약여성들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 장필화 이사장



2부 다감한 이야기

2부는 이민화 감독의 단편영화 '백차와 우롱차' 관람으로 열었습니다. 두 여성이
차담을 통해 연대하고 위로를 건네는 내용으로 한국여성재단 손수현 홍보대사가
출연한 작품입니다. 이어서 봉태규 홍보대사, 이민화 감독, 이숙경 서울국제여성
영화제 집행위원장, 노지은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의 영화를 주제로 한 다감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이야기와 더불어 연대, 소통, 나눔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영화의 여운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모던가야그너로 활동하는 정민아님의 가야금 공연
이었습니다. 의미를 담은 노랫말과 아름다운 연주로 참석하는
모두가 마지막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따뜻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 2025년에도 함께

다양한 분들의 마음이 모여, 25년간 평화, 평등, 상생의 가치로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W기금모금캠페인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재단의 활동이 지속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꾸준히 또한 새롭게 재단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에 25주년 W기금모금캠페인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
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동행에 힘입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W기금 연중 참여 안내
- 나눔계좌: 농협 317-0003-6724-91 (한국여성재단)
- 나눔문의: 02-336-6463 (나눔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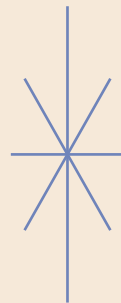
글 - 나눔기획팀 박정아

제7차 여성회의 페미니즘∞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

더 스토리

기후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연대



여성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효정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에코페미니즘, 농업, 여성농민, 생태시민성에 대한 페미니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이 지켜온 토종씨앗과 토착지식, 생애사를 담은 책 <씨앗, 할머니의 비밀>을 썼고 이외에도 책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 <다시 쓰는 여성학>,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등을 함께 썼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한국여성재단이 개최한 여성회의 <페미니즘∞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의 기획 및 준비위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회의와의 인연은 제가 대학원생일 때 2014년 2차 여성회의에 처음 참여했었고, 2016년 3차 여성회의에서는 기획위원으로, 이후에도 매회 여성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여성회의의 주제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문제에 어떻게 페미니즘은 응답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여기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 운동과 실천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나갈 것인지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제7차 여성회의가 <페미니즘∞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기획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페미니즘 실천과 운동의 각기 다른 아젠다와 고민을 공유하는 동시에 다른 차이들의 교차점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누구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젠더, 연령, 지역, 장애, 계급, 인종 등 교차성을 고려하면서 씨실과 날실을 연결하고 연대하기 위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회의가 모두에게 공부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제7차 여성회의는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총 57개 기관 및 단체 107명의 여성운동 및 기후운동 활동가, 여성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여성 회의에는 여성회의의 주 참여자인 여성운동활동가 및 여성연구자뿐 아니라 기후운동 활동가의 참여가 더해져 여성운동의 확장과 연대를 시도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여는 프로그램으로 기후감정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직접 맞닿는 물질로써 기후를 직접 감각하고 우리가 갖는 기후정동에 대해 인식하는 동시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스스로가 기후를 구성해 내는 존재라는 점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기후정의는 왜 페미니즘의 문제인가”, “기후행동을 주도하는 페미니스트들”, “기후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연대”라는 큰 주제 아래 여성회의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성농민 활동가에서부터 반성폭력 활동가, 기후환경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유하는 기후와 젠더문제에서부터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교차되는 점들은 결국 기후정의는 젠더정의이고 젠더정의가 기후정의라는 명제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성노동, 농업과 농촌, 젠더폭력, 군사산업, 세대 간 정의, 풀뿌리운동과 초국적 연대, 탈성장과 정의로운 전환, 마을에서 만나는 기후 행동, 동물정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서로 연결하면서 연대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을 꽉꽉 채웠지만 한편으로 짧아서 아쉬웠던 이번 여성회의는 여성운동의 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생태적 사회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년 후 개최될 제8차 여성회의는 또 어떠한 페미니즘 아젠다로 진행이 될지 벌써 기대됩니다. 한국여성재단이 개최하는 여성회의는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젠더 부정의에 대항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실천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한숨을 고르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귀한 공간이자 시간입니다. 전국의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여성운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어가 주시는 한국여성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 2년 후에 또 만나길 고대합니다.



이번 여성회의에서는 훌라춤을 통해 몸짓으로 평화를 표현하고 연결과 연대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빨강고 노란 단풍아래, 일상의 치열함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훌라춤을 배우고 함께 춤을 추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글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김신효정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현장 속으로

다채로운 여성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최근 방영한 드라마 <정년이> 재밌게 보셨나요? 1950년대 여성 국극 배우들의 성장과 경쟁 그리고 연대를 담은 이 작품은 '여성서사'라는 설명이 잘 어울립니다. 드라마의 원작인 동명의 웹툰이 2020년 한국여성재단의 제작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성서사는 여성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처럼 여성 예술인 지원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변화를 꿈꾸고 있으며,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한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은 이러한 재단의 비전을 실현할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돌보는 여성 예술인



지난 7월, <2024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66명의 여성 예술인이 재단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 활동을 소개하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성 예술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작품 세계는 무척 폭넓고 다채로웠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들 중 7명의 여성 예술인을 발굴하여 작품 활동과 자기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된 창작자들은 작품 활동을 위한 500만 원의 지원금으로 12월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재단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이들의 개별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돌봄을 독려하는 네트워킹 워크숍을 운영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7인의 예술가들이 7월 오리엔테이션으로 만났습니다. 개별 창작에 집중하던 여성 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품이 아닌 '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작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하는 나를 인식하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타로를 매개로 자신의 상태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7인 7색, 작품 소개

12월에 개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소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의 영감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영감이 되어줄 여성 예술인 7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김나연 감독

<콘돔팔이소녀>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기획하는 김나연 감독은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강제적인 출산 정책이 펼쳐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며, 불법이 되어버린 콘돔을 판매하는 주인공이 친구를 위해 낙태약을 구하는 서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시각 예술, 연극, 퍼포먼스, 디자인, 글과 낭독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개척해 온 사랑해 작가는 사업 기간 동안 유화 9점, 드로잉 4점, 조형 작업 2점, 영상 작업 2점, 퍼포먼스 4종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개인 전시회 <—를 멈추지 말아>를 개최했습니다. 정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미끄러지는' 몸과 정체성을 가진 작가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소현 감독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를 기억하시나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박소현 감독은 고양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영화에서는 고양이를 돌봐달라는 연락을 받아 방문 돌봄을 다니게 되는데요. 고양이를 통해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서사를 담은 <고양이 돌봐드립니다>는 최근 국제동물영화제에도 초청되었습니다.

오세연 감독

범죄자가 되어버린 스타로 인해 고통받는 팬들을 만나는 블랙코미디 <성덕>으로 주목받은 오세연 감독은 신작 <애인발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솔로로 지내는 어머니의 애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이야기로, 이 과정에서 중년 여성의 욕망과 부모 돌봄에 대한 감독의 고민과 해소를 드러냅니다.



이은희 감독의 <무색무취>는 반도체 산업 재해 피해자들의 경험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를 오가며 담아냅니다. 안전 규제와 인건비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라를 이동한 기업들은 여성들의 노동 환경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나아가 피해자, 활동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연대의 모습 또한 그려냅니다.



황윤 감독

<잡식가족의 딜레마>, <수라>로 이미 많이 알려진 황윤 감독은 차기작 <천년나무>를 준비 중입니다. 전북 군산의 어촌마을 하제를 배경으로, 600살을 맞이한 팽나무를 중심으로 마을을 지키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생명을 노래하는 영화입니다.

이지연 감독

다양한 장편과 단편 영화 작업을 해온 이지연 감독은 AI를 비롯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굴>은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 보름은 전학 온 수정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수정이 때 이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작품은 10대 쿼어 성장 서사이자 SF평행우주물로 슛폼 형태로 대중과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예술로 여는 성평등한 내일

여성 예술인 지원사업은 단기간 내에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감독님은 시나리오 수정으로 촬영이 연기되기도 하고, 작품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펀딩을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성 예술인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성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예술가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예술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연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작품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 - 지원사업2팀 안예슬

이은희 감독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현장 속으로

상생과 여유가 깃든 달콤한 카페, '내 사랑을 먹어주세요'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이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지원 초기에는 이주 여성의 사회·경제적 소외에 초점을 맞춰 이주여성 창업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확대되어 2024년에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여성 소상공인 네트워킹, 업체별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사업장 개선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2024년 참여자분들 중 디저트 카페 '내 사랑을 먹어주세요'를 운영 중인 김선희 대표님을 만나 사업에 참여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운 겨울날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는 즐거움까지 있었던 김선희 대표님과 감동적이고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Q. 김선희 대표님과 '내 사랑을 먹어주세요'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한 24시간 카페를 운영 중인 김선희라고 합니다. 저희 매장은 베이커리 디저트를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분들과 2030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어 차리게 된 가게입니다.

Q.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서울청년센터 관악동네정보풍풍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감 전날 공고를 확인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될까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었어요. 서류심사 후 면접심사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참여자를 뽑는다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Q. 참여하시면서 사업장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사업장은 2021년 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였고 매장 내 운영 자체가 어려워 배달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료되고 배달이 감소하면서 홀 운영을 증대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 이 시기가 저한테는 위기였습니다. 이때 여성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에 참여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매장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솔루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장 내부 상황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및 메뉴판 변경과 홍보를 위한 쇼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랑 교육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경쟁업체가 아닌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며 연대, 상생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김선희 대표님이 꿈꾸는 사회란 어떤 곳일까요?

갈등이 아닌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하는 삶, 여유를 찾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4시간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제 삶이 없긴 하지만 저희 매장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리뷰나 피드백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가게들이 문을 닫았을 때 연극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연습도 하며 공간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극 표를 주면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뿌듯했어요. 제시간이 없고 조금 힘들어도 24시간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Q. 여성 소상공인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를 통해 여성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만나고 함께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육아를 하시고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어요. 가정을 살펴야 하는 여성으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고 함께 길을 찾아가며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여성 소상공인 분들 파이팅!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성과 공유회

12월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 IV> 성과 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여성 소상공인 대표분들과 사업 담당자, 후원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역량을 키우고 변화를 만들어간 참여 과정과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봄 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과 여러 고민이 있지만, 기업가로서 전문성을 키우며 성장의 시간을 가진 여성 소상공인 대표들의 이야기가 함께한 모두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참여자분들의 사업장에 2025년 좋은 소식이 더욱 깃들기를 바라며, 한국여성재단은 모든 소상공인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글 - 나눔기획팀 성예현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현장 속으로

이주여성의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이혼, 사별, 별거 등의 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과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문화적 낯설음 속에서 홀로 자녀 양육을 하는 어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쉽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이주여성 간의 네트워크와 자조모임을 통해 상호 공감과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쉽실 곳, 기댈 곳!

저는 제주글로벌센터에서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참여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여기는 제가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그냥 언니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4년 동안 제일 힘들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직장도 잃고 친정도 없고 솔직히 중국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갈 데도 없었어요. 그때 맨날 제주글로벌센터에서 한 2년 동안 공부 좀 했어요. 의료코디네이터 자격증도 따고, 사이버통역사 자격증도 따고 여기서, 커피, 요리 등 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면서 자신감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 참가자 '가영' 인터뷰 중에서 >

한국여성재단은 2024년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익산, 목포, 대구, 마산, 제주 전국의 5개 이주여성 단체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12월 전국의 단체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진행된 사업과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결과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각 단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인터뷰로 참여한 영상을 나누며 사업 과정과 의미를 돌아보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 단체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에 위치한 이주민푸른민권센터(사업명: 통(通)하는 가(家), 행복한 가(家))는 숲체험, 목재를 이용한 만들기 과정을 통해 사춘기 자녀와 단절된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어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목포에 위치한 전남이주민통합지원센터(사업명: WITH GO)는 자녀 양육방법 코칭, 멘토-멘티 자조모임, 가족여행을 진행하여 가족 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이주와 가치(사업명: 아이맘 알아요(MOM))는 가족상담, 엄마하고 그림책 만들기, 1박2일 캠프를 통해서 가족 간의 끈끈함을 더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산에 위치한 경남이주여성상담소(사업명: 엄마들의 꿈다락)는 집단상담, 목공예 활동, 가족사진 촬영, 영화관람, 경주 역사 기행, 플로깅 자조모임을 하며 단순히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주에 위치한 제주글로벌센터(사업명: 아름다운 동행(同行))는 독거어르신 반찬지원, 청소년들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제주문화재 알기, 반려식물키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고 소통의 기회를 넓혀 가족 구성원 간의 끈끈한 힘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드는 다양성 사회



지난 6년 동안 한국여성재단은 전국 이주여성 지원 단체들과 협력하여 한부모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사업을 지속하며 한부모 이주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는 물론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서 안정감을 얻고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사업영상 보기

글 - 지원사업2팀 박주선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배우 봉태규를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홍보대사, 배우 봉태규를 만나다



한국여성재단은 2024년 11월, 배우 봉태규님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위촉 후 12월 W기금모금캠페인과 기부자 초청행사 '다정다감'에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추운 겨울날, 진정성 있는 따뜻한 동행으로 한국여성재단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봉태규 배우님을 만났습니다.
배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DJ, <개별적 자아>,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저술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배우,
봉태규 홍보대사의 인터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Q. 2024년 홍보대사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수락하시게 된 이유와 위촉식 때 재단의 첫인상을 여쭙봐도 될까요?

처음 여성영화제를 통해 연락을 받았는데 재단의 활동 취지와 홍보대사 제안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이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이 후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증거로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서 중요한 증거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식으로 한국여성재단을 처음 방문했는데 분위기나 임직원분들 모두 참 편안했습니다.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이 제가 평상시 추구하는 삶의 시선과 방향과의 결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만나뵙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Q. 2024W기금모금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고 기부자 초청 행사 '다정다감'의 사회도 맡아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진행하시면서 어떠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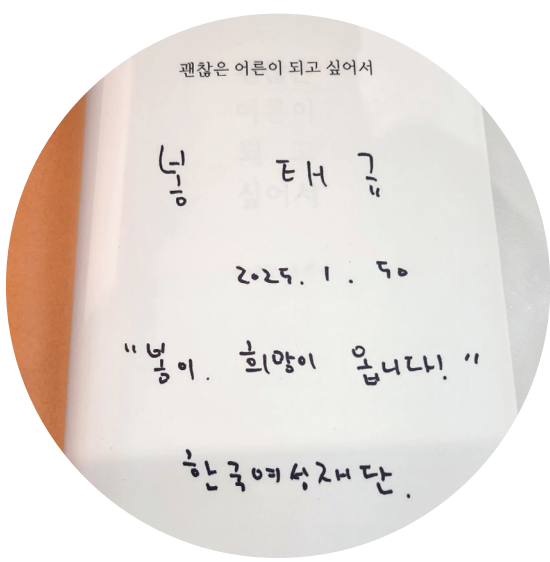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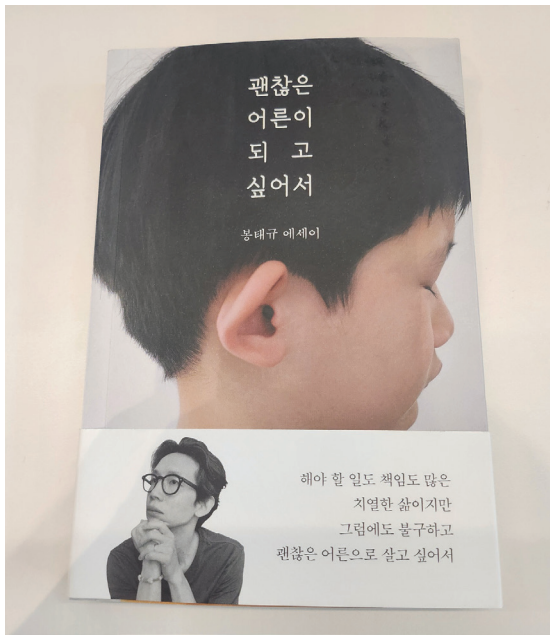
기부자 초청행사를 서울여성국제영화제와 콜라보로 진행하는 것이 색달랐습니다. 최근 여성 분야에 지원이 박해졌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연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현장에서 즐겁게 사회를 맡았습니다. 영화와 함께 한국여성재단의 기부자들이 함께 모여 한 해의 재단의 활동을 나누고 연대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모두를 위해 굉장히 유익한 행사라고 느꼈습니다.



기부자초청행사 '다정다감'현장에서

Q. 2000년 영화 <눈물>을 통해 데뷔, 올해 26년차 배우인데요. 오랜기간 배우로 활동하시면서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작품을 고르는 기준은 결혼 전과 후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의 가치를 우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배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이라는 게 노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노동이 주는 송고한 가치는 사실 그 어떠한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업인으로 나의 노동을 얼마나 꾸준히, 어느 때까지 할 수 있느냐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직업이 프리랜서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직업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끈을 놓지 않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해서 혹은 내가 선택했던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으로 받아들이면 결과에 대해 조금 의연해지는 게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으로, 또 어느 시기에는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인드로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Q. 배우뿐만 아니라 작가, DJ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특별히 책을 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최근에 발행되었던 책 <관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소개해 주세요.

결혼하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무렵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자극 해아 겠다는 생각과 함께, 걷기를 하다가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읽었던 책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쓴 단편 소설, 자서전으로 주인공이 나약하고 소심한 인물이었지만 책을 통해 감정이입이 잘 되었습니다. 하루에 세권씩 책을 읽으며 장르를 넘나들며 독서에 집중했습니다. 독서량이 늘어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적은 원고료를 받아 공연 에세이도 썼습니다.

첫 번째 책 <개별적 자아>를 시작으로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를 냈고, 세 번째 도서 <관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썼습니다. <관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는 관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담아야겠다는 생각에 어린시절 아버지에 대한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어린시절 이야기를 통해 그 시간이 겪으며 내가 어떠한 어른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접하는 분들이 관찮은 어른으로의 고민을 담은 메시지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Q. EBS국제다큐영화제,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사회와 더불어 경기도 양성평등주간문화콘서트에도 토크자로 출연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평등, 포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대중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 저를 통해 한 두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와 더불어 누나도 두 명 있는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의 방향성이 달라 졌고 그때부터 조금씩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심 없이 모르고 지냈던 어머니, 누나들의 삶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비웃었습니다. ‘네가 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글로 표현을 하고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꾸준히 저만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과정이겠지만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그동안 잘 해왔구나, 잘 걸어왔구나, 네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이 나쁘지 않았어 수고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발간 도서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의 표지는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육아 서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육아 서적이 아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족을 빌려서 쓴 에세이입니다. 책 관련 토크자로 참여한 자리가 있었는데 여성주의에 대한 반감도 있던 시기라 그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계시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누나들과 딸도 있습니다. 우리엄마, 할머니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친구, 후배, 아는 누나, 모두의 이야기이며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결혼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Q. 홍보대사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자랐을 때 동네나 부동산의 가치로 스스로 혹은 타인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한국여성재단 활동에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DJ 활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 주시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우로서 연기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책 발간을 계획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봉태규’를 개설 하였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소한 제 일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소식지 를 보시는 분들께,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가치와 철학에 소신을 가지고
관찮은 어른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봉태규 홍보대사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보대사님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연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봉태규 홍보대사님의 2025년 활동을 응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은 제 안에 있습니다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계급,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핵심 사업입니다.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파트너 기관인 쭈마네는 여성들의 자립과 예술적 성장을 돕는 곳으로 인생 창작학교이자 문화예술 창작학교입니다. 2001년부터 일상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의 눈으로 세상과 소통하였습니다. 여성이 자기 삶을 기획하는 능력을 키우고 세상과의 다리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쭈마네를 끌어갈 뿐만 아니라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겸임하며 에너지 넘치는 바쁜 나날을 이어가고 있는 이숙경 대표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Q 이숙경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숙경입니다. 2001년에 쭈마네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서울여성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제 쭈마네 대표, 영화감독이라는 현업으로 돌아갑니다.

Q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으셨게 되셨나요?

쭈마네에서 '일상'을 기반으로 한 기획들을 실행할 때 한국 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사업은 경력 보유여성 마을버스 기사 취업지원사업 인터뷰를 아코디언 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작업이에요. 재단 담당자 분과 버스 기사님의 인터뷰를 하며 사전 준비를 함께 했던 과정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성이면서 페미니스트인 감독으로서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귀한 인연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재단의 지원으로 강유가람, 반박지은, 김혜정 감독을 비롯하여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여성 감독들이 품앗이로 제작하며 후일을 도모할 수 있었었습니다.

2024년 여성예술인지원사업 심사를 맡았는데, 재단이 지속적으로 창작과 네트워킹을 위한 펀딩과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Q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서는 청년 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집쓰기 워크숍을 진행하셨어요.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더불어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2019년부터 '거처로서의 집',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만나고 싶었습니다2: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쭈마네 이숙경 대표를 만나다

'나다운 집찾기'와 같은 테마로 쭈마네에서 집담회, 집쓰기 워크숍, 집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집'이 부동산 혹은 투자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삶'을 담아내는 '거처'로서의 집에 대한 담론이 부재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선 경제적, 심리적 자립뿐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관계망 형성이 필수인데 '우리는 어떤 집, 동네에서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서로를 돌보며 지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토론의 장을 '부동산 담론'에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시작한 장기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집찾기 전>

'나다운 집찾기'는 투자가치 있고, 잘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것을 넘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는 안목과 취향의 발견, 경제적인 판단과 선택, 관계망 구성, 돌봄과 살림영역 확보'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집쓰기 과정 중에 기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시회 '집찾기 전'을 쭈마네 공유공간 '틈틈이'에서 열었는데,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이 한 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내용들을 몰입해서 보던 장면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가자분 중 한 명이 빅이슈에 칼럼을 기고하셨고, 틈틈이 기획자 중 한 사람이 숲과 나눔 포럼에 초청받아 '집쓰기 워크숍'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틈틈이는 상시적으로 '집찾기 전'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숍 참가자들의 기록과 집에 관한 탐색, 실용적인 정보, 질문들을 오픈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틈틈이에 우연히 들어와서 '집찾기' 고민과 질문을 따라 책상에 앉아 긴 시간 몰두하는 방문자들이 많습니다. 무슨 부동산 사무실도 아닌데, 틈틈이 입구에 붙어 있는 '집찾기 전' 포스터를 너무 유심히,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Q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영화제를 끌어오시면서 영화제가 여성계에서의 갖는 의미를 나눠주시면 좋을까요. 또한 재단이 지원했던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올해의 보이스상'의 의미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여성국제영화제 같은 '사회적 거처'가 주는 영향력은 정말 매우 크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영화제는 작년에 특히 예산삭감 이슈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여성국제영화제는 재정 마련과 관련한 부담을 계속 안고 영화제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여성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라는 위상으로 실행되는 영화제들(부산, 전주, 부천

등)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운영비를 마련 하면서 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서울여성국제영화제의 '올해의 보이스' 시상 때 여성재단에서 상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서울여성국제영화제에서 '여성주의 담론과 실천'을 모색하는 중요 주체들에게 주는 상인 '올해의 보이스' 수상 후보 선정과 상금 후원을 재단과 함께 협업한 것은 매우 뜻깊은 영화제의 큰 성과입니다. 활동가와 실천의 현장을 응원하고 시상하는 것과 함께 한국여성재단과 서울여성국제영화제라는 플랫폼이 협업하고 연대하여 '여성주의 공유지'를 돌보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2024년에는 한국여성재단 W기금모금캠페인 '다정다감' 행사에 서울여성국제영화제가 함께했는데요. 쭈마네, 영화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하면서 대표님이 느끼셨던 재단은 어떠셨어요?

한국여성재단이라는 일터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캐릭터가 너무나 흥미롭고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멋져요. 재단이 하는 일들을 포스터나 행사의 내용, 형식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한국여성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방향과 색깔을 직관적이면서 왜곡되지 않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획 초기부터 '다정다감' 행사 당일 실행까지 합이 잘 맞고, 소통하는 과정도 재단 스태프들의 역량과 다채다능함에 놀랐습니다. 음, 노지는 총장님의 현장에서의 놀라운 센스와 장악력에 모두 매료되었잖아요. 배우 봉태규님 눈도 엄청 반짝였던 기억이 납니다.

Q 한국여성재단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영화제와 한국여성재단은 누군가를 지원하고, 응원하며, 여성주의 공동체의 장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고 지지하며 나아가도록 돕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재단 후원의 밤 행사 '다정다감'도 서로 한 마음으로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의 보이스' 협업도 역시 개인이나 단체를 돌보는 주체로서의 여성재단과 여성영화제라는 위치에 함께 서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덜 외로웠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나눔기획팀 성예현

재단활동소식 2024년 7월~12월



〈We are Future Makers〉 3기, 클로징 파티

8월 24일, 〈We are Future Makers〉 3기 참여자들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클로징 파티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담아 만든 행성(비전) 보드를 만들어 서로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나누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의 의미를 담은 수료증을 전달하며 클로징 파티는 따뜻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워킹맘, 커리어를 그리다 〈Write Your Future〉 토크 콘서트

9월 28일, 워킹맘, 커리어를 그리다 〈Write Your Future〉 토크 콘서트를 통하여 120여 명의 워킹맘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회차 워크숍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최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워킹맘들의 육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듣고 나누며 서로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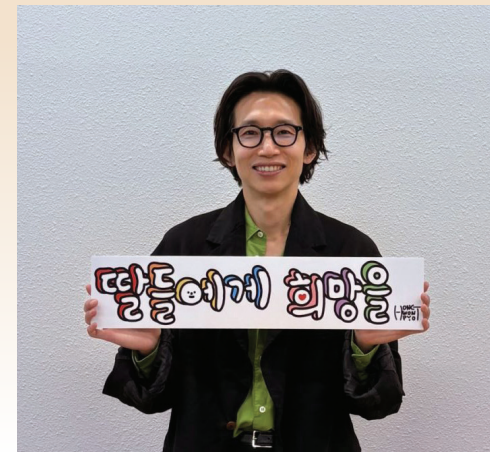
(주)오니스트, 취약계층 여성 및 여성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물품나눔

11월 7일, 한국여성재단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부처 오니스트가 함께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불필요한 화학 성분을 배제하고, 프리미엄 원료만을 사용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이너뷰티 기업 (주)오니스트에서 대표 제품인 트리플콜라겐 1,000만 포 판매를 기념해 2억 5천만 원 상당의 트리플콜라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은 건강함에서 온다는 오니스트의 가치와 함께 취약계층 여성 및 공익단체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는 나눔이 되었습니다.



2024 디지털 아카이브구축사업 공유회

11월 16일, 2024 디지털 아카이브구축사업 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계획 등과 관련된 성매매집결지 아카이브와 일본군 위안부 등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기록 방법, 가치 있는 기록의 가치를 정하는 일에 대한 질문과 함께 역사와 교육 활용 방법을 다루는 주제로 기초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또하나의문화, 막달레나공동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울산 YWCA, 여성문화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여성회 6개 단체의 아카이브 구축과정 이야기를 나누며 참여한 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록에 우리의 기억을 더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봉태규 배우 신규 홍보대사 위촉

11월 19일, 배우 봉태규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영화 '눈물'로 데뷔하여 시트콤 논스톱,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열연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서적 출간, 음원 발매, 예능 출연, 라디오 DJ 등 폭넓은 활동을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봉태규 배우의 홍보대사 위촉 소식으로 한국여성재단이 들쭉날쭉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의 홍보대사 위촉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위촉식에서 봉태규 홍보대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조금 다르더라도 연대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하며 세상의 좋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나눠주셨습니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딸들에게 희망을 전할 홍보대사로서 활약할 봉태규 홍보대사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2024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활동 공유회

11월 21일,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활동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성, 인종, 나이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2024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는 12개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의 여러 바쁜 일정을 고려해 활동공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된 1년 동안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나누고 연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진솔하게 사업과정에서의 고민을 나누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메 에스테틱, 싱글맘의 뷰티 자신감을 위한 기부

11월 21일, 클리메 에스테틱과 싱글맘의 뷰티 자신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원으로 일상에 지친 싱글맘들이 당당하고 온전한 일상을 살아가 수 있도록 내외적 자신감 향상을 돕는 <싱글맘 나다움 PLUS+> 사업은 2023년에 이은 클리메 에스테틱의 기부로 2년째 지원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클리메 에스테틱의 따뜻한 기부 동행으로 2025년에는 한부모, 미혼모 등 싱글맘 70개 가정에 맞춤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We are Future Makers〉홈커밍 파티

11월 23일, 〈WE ARE FUTURE MAKERS〉홈커밍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레드와 그린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참가자들은 게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선물을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회고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1기, 2기, 3기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공감과 지지로 서로를 응원하는 웃음이 가득했던 따뜻한 연말 파티가 되었습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하는 폐암제로 캠페인 앰버서더 입학식

11월 27일, 씨스퀘어에서 폐암제로 캠페인 앰버서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비흡연 여성 폐암의 위험성과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폐암제로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필화 이사장이 참석해 여성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에 따른 특수성과 폐암의 인식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기관과 함께 여성의 건강권과 폐암의 위험성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 내한공연 수익 기부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Olivia Rodrigo)가 내한하여 지난 9월 20일, 21일 양일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 콘서트, #GUTSworltdtourSeoul 티켓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한국여성재단(KFW)은 1999년부터 창의적인 성평등 프로젝트, 여성의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 미혼모와 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영역 등에서 수많은 여성 단체와 활동가들을 지원해왔다”고 재단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며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도 공유하였습니다.



[발행]2024 <We are Future Makers> 3기 자료집

2024 자립준비 여성 청년 역량강화 지원 사업 <We Are Future Makers> 3기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보호 종료 이후 여성 청년들이 자신을 돌보며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 소개, 10회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젝트 활동과 소규모 워크숍,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 이야기, 참가자 후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주관 및 파트너기관 소개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힘든 여성 가장 건강 증진을 위한 해피빈 모금

여성건강지원사업은 건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여성 가장과 여성·공익 단체의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종합검진지원, 치과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해피빈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만성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힘든 여성 가장 증진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132명이 동참하였으며 모금액은 474,700원이었습니다. 여성 가장들이 스스로 돌봄으로써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부자 명단 2024년 7-12월

개인

Aileen Park(박아일린) Alexis Bourreille KURIHARA ATSUSHI
LINTONJINA(이지나) Olivia Rodrigo

㉑

강대인 강덕순 강도성 강명신 강범희 강보길 강보승 강상모 강서연
강순애 강순자 강승희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윤서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정녕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지연 강태인
강현숙 강혜규 강혜금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경진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수민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재순 고지애
고지원 고채우 공보경 공옥분 공태숙 박숙희 박영선 박은숙 박지혜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숙경 구옥순 구자인 구춘자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동휘 권명희 권민지 권새롬 권수연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윤희 권은숙 권은희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섭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해림 권현지 권혜영 금진주 김가연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경희D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귀옥 김금례 김나리 김나연 김난이 김남희 김다은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동식 김동휘 김돌순 김득현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진 김명혜 김명희 김모란 김문희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A 김미애B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정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보라 김보영 김보민A 김보민B 김복열 김복자
김봉연 김봉일 김분기 김상분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서영 김선미 김선옥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은 김성준 김세연 김세은A
김세은B 김세화 김소양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A 김수민B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정A 김수정B 김수현A 김수현B 김숙경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승혜 김시은
김신효정김아라 김안나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숙 김양지영김양희
김연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수 김연정 김연화 김연희 김연희
김영란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A 김영선B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철 김영화 김예슬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운학 김원모 김유경 김유리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별 김윤수 김윤주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윤희C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민숙A 김민숙B 김민순 김민영 김민춘 김자인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장미 김재구 김재민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준 김재춘
김정란 김정민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A 김정희B 김종덕 김종순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지나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A 김지원B 김지원C 김지원D 김지혜
김 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욱 김태욱 김태환 김태훈 김평집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나 김한별 김행옥 김행민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 김현영 김현주 김현지 김형기 김혜경 김혜령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A 김혜숙B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진 김혜정 김혜진A 김혜진B
김홍열 김홍우 김희성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윤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진

기부자 명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집계기준일(납부일): 2024.07.01.~12.31.

㉒

나성주 나윤경 나인영 나지연 나진희 나혜림 남기용 남동원 남미현
남영이 남영주 남인순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태운 노형수 노혜진 노희섭

㉓

도경희 도남래 도이현 도인정 동고은 두석호

㉔

롯데카드포인트기부자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혜 류춘희

㉕

마경희 마소현 마정윤 맹지열 맹필수 맹혜정 명진숙 모지은 모혜자
모희연 무 명 문경란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시윤(문의성)
문시윤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근 문희영 민영선
민옥기 민은정 민현주 민형태

㉖

박가현 박건혜 박경림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금주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미나
박미연 박미영 박미화 박민식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현 박상현 박석자 박선의 박선희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진 박수경 박수미 박수정 박수진 박송진 박애경 박애리
박애순 박영남 박영란 박영삼 박영주 박영준 박영혜 박영희 박옥필
박옥희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실 박은위 박은정A 박은정B 박은희
박이레 박익수 박정근 박정례 박정아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선 박주연 박준웅 박지연 박지영 박지호 박 진
박진선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원 박춘순 박태경 박 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자 박형주 박혜란 박혜선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
박혜정 박효숙 방소현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은주 배종학
배철웅 배한영 배현지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성경 백소영
백순화 백승리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지수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북금희 빈희진

㉗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옥경 서우찬 서윤아
서은미A 서은미B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은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A 서지희B 서현숙 서현우 서혜령 서혜정 서희경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용원 석재은 석지는
선은주 선진국 설영수 설이숙 성경애 성기화 성선숙 성예랑 성예현
성정현 성형주 손순연 손압구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송기옥 송기원
송다영 송리라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유준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찬양 송혜영 송효진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미순 신민자 신봉근
신봉남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은섭A 신은섭B 신은숙 신의경 신인영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창재 신필규 신호성 신희숙 심누리 심복길
심숙경 심애스더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기부자명단(2024년 7~12월)

㉘

안건희 안경모 안기선 안김정애안미영 안미화 안상진 안선영 안수란
안수완 안순화 안승용 안승옥 안영진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근혜 양민석 양서랑 양서연 양서영 양옥경 양유성
양진호 양태경 양현식 양현정 양호정 양후전 양희영 엄미영 엄서영
엄선애 엄태호 엄미숙 오경인 오경철 오금식 오명숙 오명옥 오세홍
오가영 오경숙 오영인 오영철 오영식 오영순 오영옥 오영호
오솔임 오수정 오신영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오현식 오혜란 옥천수 올리비아로드리고(가명)
우남선 우상숙 원미혜 원민경 원선아 위라겸 위소희 유가효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 란 유명종 유보람A 유보람B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자 유승완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숙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한구 유희정
육성희 윤경숙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연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승재 윤연숙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희 윤종원 윤종철 윤지아 윤지안 윤지우 윤진영
윤형숙 윤혜린 윤호준 음종성 이가영 이강수 이건정 이경선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고은 이광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이귀우 이규선 이그림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나영 이남순 이다경 이덕혜 이도영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하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루오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A 이미경B 이미경C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박혜경이병주
이보현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미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희 이상태 이상현 이상화 이서연 이서영 이선미
이선민 이선주 이설아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현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A
이수정B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현
이슬기 이승수 이승은 이승현 이아람 이안소영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지 이연창 이영미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A
이영희B 이예슬 이예원A 이예원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우진 이원식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희
이윤성 이윤재옥이윤지 이은아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A
이은주B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이외녀 이이섭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조 이임주 이자영 이재근 이재숙
이재윤 이재민 이정민 이정숙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원C 이정자 이정현
이종숙 이종순 이주연A 이주연B 이주홍 이주희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A
이지영B 이지훈 이진경 이진아 이진주 이진희 이창균 이채원 이채이
이철수 이춘아 이춘희 이춘원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영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혜경 이혜민
이혜영 이혜원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호영 이홍복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효진 이홍재 이화원 이희정A 이희정B 임경민 임경숙 임경자
임경훈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도경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영화
임우경 임은주 임인숙 임지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호근
임희은

㉙

장근영 장나미 장동애 장명련 장미연 장소연A 장소연B 장소현 장수영
장수홍 장숙영 장순희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민
장예지 장우주 장원호 장윤선 장인선 장재철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태진 장필화 장한나 장재재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부숙 전양숙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재윤
전진영 전혜림 전호주 정강자 정경숙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환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상철 정서연 정선경 정성녕 정성호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애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원주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경 정윤현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지아 정지영 정지원 정진주
정진희 정차선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초윤 정현미 정현석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희경 정효지 조경미 조경숙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나연 조덕희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배원 조병준 조복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연 조아라 조연숙 조영한 조예슬
조옥라 조윤세 조 은 조을순 조인자 조임종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원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정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 영 주혜명 지상구 지속자 지인희 진해리

㉚

차가현 차경애 차미경 차승현 차예슬 차인순 차재명 차진순 차혜민
채문희 채수경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최경수 최경실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 최광식 최권오 최규복 최남미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서영 최선아 최선열 최선희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옥 최영준 최옥숙 최원식 최원주 최유경 최유진 최윤영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희 최정윤 최정은 최정민
최진희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㉛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㉜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자은 한명희 한상진 한선희 한송이
한수빈 한승희 한애리 한옥연 한원경 한일순 한정민 한정연 한정옥
한진희 한창호 한창하 한태희 한현옥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한혜윤
한혜주 함영진 해피빈기부자 허남재 허미영 허선이 허소연 허소정
허순희 허 영 허우석 허윤희 허은실 허철준 허혜영 현소연 현준식
형난옥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영 홍미정 홍미희 홍상아 홍상옥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세희 홍수연 홍순웅 홍승아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은채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나
홍지민 홍지창 홍진선 홍현옥 홍희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 윤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주연
황준협 황지원A 황지원B 황훈영

기업/단체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덕수엔지니어링
(주)호성투어 Kering Foundation(케링재단) Super Junior(팬일동)
교보자선신탁(주) 농협은행(서교동지점) 레벤심리상담교정연구소 미래포럼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주)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샤넬재단 샤넬코리아유행회사
수학바로봄 신우카페 아카이브센터(주) 엘오케이(유)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성연대플리(PLLI)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학생일동
연대여성치과의사회 울산여성의전화 원츠인 유한김벌리
제이피도간증권회사 주식회사 꾸림 주식회사 오니스트(Ownist, Inc.)
주식회사마큐라 줌마네 테마노래연습장 하나금융그룹
한국여성노동자회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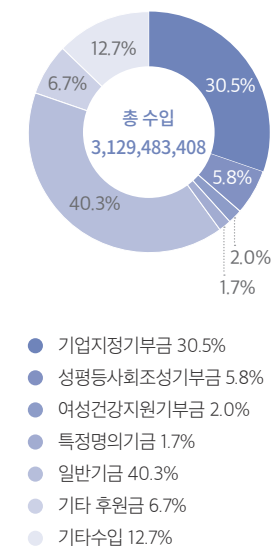
재정보고

총 수입

3,129,483,408 원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 기업지정기부금	기업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956,084,686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182,826,348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2,676,600
●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55,180,000
● 일반기금	프로스페라기금, 해피빈, 사넬기금 외 다수	1,262,954,595
● 기타 후원금	W기금모금캠페인, 협찬금 등	210,436,400
●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한차익 등	399,324,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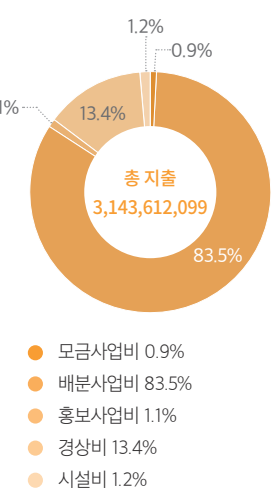
수입과 지출(2024년 1~12월)



총 지출

3,143,612,099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비	●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29,848,385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개인모금) 여성운동생태계조성사업(샤넬재단) 젠더폭력대응활동지원사업(케링재단)	
		2. 여성인권보장 여성건강지원사업 봄빛장학금(봄빛기금)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유한킴벌리)	
	● 배분사업비	3. 여성 empowerment 여성 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교보생명) 자립준비여성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샤넬코리아) 여성예술인지원사업(보그코리아) Write your future(람콤코리아)	2,615,703,447
		4. 다양성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양육미혼모지원사업(연대여성치과의사회) 이주여성경제적자립지원사업(JP MORGAN) 한부모이주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동서식품) 이주여성리더발굴지원사업(하나금융그룹)	
		5.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 홍보사업비	소식지, 연간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6,749,675
	●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422,337,879
	●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8,972,713
	운영비		



기부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의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W기금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주제별 사업기금

여성안전 및 폭력 예방, 여성건강지원, 해외여성청소년 자립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기념일 나눔

돌, 생일, 결혼, 추모 등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기부

기업 사회공헌, 임직원 나눔, 현물 기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온라인 기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접속, 기부방법 클릭 후 신청
나눔계좌(무통장입금)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창립 이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